



5월 동향

03	제71차 집행부 회의	19	2011학년도 해외 단기연수 운영위원회
03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시작	20	학원정상화를 위한 6개대 대책회의
11	학원정상화 서울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구, 삼지, 동덕, 덕성, 세종, 서일대
12	학원정상화를 위한 서울 상경집회	24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제2차 실무협의
16	피켓시위 속개를 위한 조정 연석 회의	24	제73차 집행부 회의
17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제1차 실무협의	31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제3차 실무협의
17	제72차 집행부 회의	31	제74차 집행부 회의

알림터

- 반값 등록금 논의 논란만 증폭 【대학지널, 2011. 5. 27】
대교협, "대학 참여와 자율성 존중돼야"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15>
- 폭발력 발휘한 '반값 등록금' 【대학신문, 2011. 5. 27】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79354>
- 경북대 법원화시 2017년까지 등록금 동결 【대학신문, 2011. 5. 27】
"법원화 연구안" 도출해 본격추진 절차 착수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79418>
- [사설] 대학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추진할 만하다 【서울신문, 2011. 5. 27】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핫이슈가 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7031010>

■ 대학교육 2011년 5.6월호 (<http://magazine.kcu.ac.kr/>)

미래대학의 변화, 김철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 대학의 특성화 방향, 고정관 (성균관대)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개선 과제, 홍후조 (고려대)

미래대학의 국제화, 김동훈 (연세대)

노동조합 기사판

■ 제13대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고

01 선거일정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13대 임원(위원장, 부위원장, 대의원)선거일정(제3차)을 공고합니다.

- 등록서류 교부 및 등록
| 2011. 5. 27(금) 09:00 ~ 15:00
노동조합 사무실
- 입후보자 기호추첨
| 2011. 5. 27(금) 15:30
노동조합 사무실
- 입후보자 공고
| 2011. 5. 27(금) 16:00 조합 기사판 및 포털시스템 공람게시판
- 선거인명부 열람
| 2011. 5. 30(월) ~ 31(화) 조합 사무실 (매일 10:00 ~ 15:00)
- 부재자신고 및 투표
| 2011. 6. 1(수) 10:00 ~ 15:00
- 투표일시 | 2011. 6. 3(금) 12:00 ~ 15:00
- 투표장소 | 성산홀 강당
- 당선공고 | 2011. 6. 3(금) 조합기사판 및 포털시스템 공람게시판

02 입후보자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제13대 임원 입후보자를 공고합니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입후보자
위원장 | 양춘호 부위원장 | 김중호
- 대의원 입후보자
강선구 강진구 김상곤 김영숙 박옥금
임숙경 여순자 장성대 황성규 황창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박성영(위원장)
김용식 남윤선 서동현 최미영 최원태



제언 새 노동조합에 바란다

신록이 푸르른 6월이다. 사무·전문직 노동의 한 분야인 대학노동조합의 태동은 24년 전인 1987년 6월의 그 뜨거웠던 민주화 열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 열기를 이어 이듬해인 1988년에는 이른바 '노동자 대투쟁'이 이어지면서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 결성이 불을 이루게 된다.

청년의 위치에 선 대구대 노동조합

우리대학 노동조합 역시 1988년 2월 13일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갖고 초대 위원장으로 이승팔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2월 24일 대구시 남구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에 따라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제 이달 31일인 13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새로 선출된다. 출범 후 23년째를 맞는 우리 노동조합은 사람으로 치자면 한창 열기왕성한 청년의 시기를 맞이한 셈이다.

대학발전 동반자 위한 역할 고민해야

일반적으로 대학노동조합은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비교하여 나온 대우로 현실안주와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대학 노동조합을 필두로 하여 최근의 대학노동조합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져진 조직의 체계화, 시스템화를 기반으로 조합원의 권익 신장은 물론 대학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총장 선출, 대학평의원회, 기타 주요 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이룬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의 중심에 놓이게 될 제13대 노동조합이 대학발전의 견인

차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 고민해야할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학내 소외계층 보듬는 노동조합의 모습 기대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는 당연히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신장이다. 그동안 우리대학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며,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앞으로는 물질적, 금전적 복지 혜택 및 권익 요구에 국한되지 않는 한 차원 높은 조합 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대학 내에서 그늘진 곳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이들의 근로조건과 환경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려는 노력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원 정상화 위한 구성원 연대 이어가야

아울러 현재 우리대학의 학원정상화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우리대학 정상화 문제가 논의되어 구제단 복귀를 둘러싸고 정이사 선임이 순연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우리대학 노동조합을 비롯한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모든 구성원들이 교과부에서 지시한 방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이사 후보 7명을 추천한 만큼 이를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13대 노동조합 역시 학원정상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원 내 모든 구성원들과의 연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3대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이룬 성과는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앞으로 예견되는 사립대학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의 중심에 놓이게 될 제13대 노동조합이 대학발전의 견인차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 고민해야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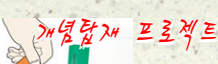
위기 극복 위한 노력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최근 대학이 실시한 경영컨설팅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가 가속화될 경우 우리대학의 재학생수가 1만1천 여 명으로 줄고 재정 적자규모도 5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는 전망이 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실인 만큼 대학본부에 비한 우리대학 모든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상황을 목전에 두고도 현재 대학본부나 구성원들의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대학 경쟁이 나날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대학이 학생과 학부모듬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면 '입학생 부족으로 대학 간판을 내리는 상황'이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노동조합은 그동안 200여 조합원의 단결과 근로조건 유지개선, 복지 증진,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새로 선출될 제13대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이 같은 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구대학교의 책임 있는 주요기관의 수장으로서 우리가 믿고 선 대학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또 사회정의에 걸맞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당부하며, 새로 출범할 13대 노동조합 집행부의 건승을 아울러 기원한다.

김지홍 ■ 사무국장



>> 명함 예절

명함, 비즈니스 사회의 얼굴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 상대방의 나에 대한 첫 인상은 이미 결정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홍보부>

명함을 내릴 때

- 명함 지갑은 반드시 상의 주머니에서 꺼낸다.
- 관련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방문자 또는 소개 받은 사람이 먼저 건넨다.
- 명함을 건넬 때는 상대방의 가슴과 허리 사이의 높이가 적당하다.
- 명함을 내밀 때는 '전 팀장'이라는 이름이 상대방 쪽으로 향하게 한다.
- 명함을 건네면서 "대구대 ○○팀의 전 팀장입니다"라고 말한다.
- 동시에 주고받을 경우 자신의 것은 오른손으로 주고, 상대의 것은 왼손으로 받는다.
- 상대방이 멀리 있다고 테이블 위에 명함만 덜렁 올려놓거나 손으로 명함을 밀지 않는다.

명함을 받을 때

- 명함을 받으면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바로 명함을 건넨다. 명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명함이 없는데 다른 종이에 적어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다.
- 받은 명함은 그 자리에서 보고 한문은 바로 물어 확인한다.
- 상대방이 여러 명일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앞은 위치에 따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고 상대를 지칭하는데 참고한다.
- 받은 명함은 미팅 중에는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후 나중에 명함에 보관한다.
- 명함을 건넨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로 명함에 넣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 미팅이 끝난 뒤 명함에 상대방의 특징, 담당 분야 등을 적어놓는다.



06-01	이 성 대	행정대학
06-04	황 정 숙	학술전자정보팀
06-06	임 동 학	총무팀
06-09	최 은 희	인문대학
06-11	박 윤 미	수업학적팀
06-13	최 도 영	학술전자정보팀
06-18	최 일 태	도서관
06-21	황 금 천	도서관
06-22	안 형 철	학생지원팀
06-23	이 경 락	관재팀
06-23	김 성 곤	총무팀
06-30	추 민 지	평가분석팀